



## 밥상의 세계관

레이첼 마리 스톤 지음 | 흥병룡 옮김 | 아바서원

### 쿡방의 세계관

지금은 쿡방의 전성시대다. 결국 이런 책이 나올 줄 알았다. 대중매체에 요리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아질 수록, 셰프가 방송의 일부가 아닌 주가 되어 가고, 매체에서 소개한 맛집이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간다. 심지어 24시간 내내 먹는 이야기가 방송되고, 세 끼 해 먹는 것이 전부인 프로그램이 등장하는 지금, 무엇보다 아름다운 장소인 식탁을, 다양한 식재료의 향연을 건강한 안목으로 기술할 칼럼니스트는 없을까, 이러한 시대의 흐름 가운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세상이 말하고 생각하는 바를 우리의 눈으로 소개할 만한 이가 없을지 찾고 또 찾던 중 드디어 만났다.

대부분의 방송이 먹거리에 집중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요구하는 미의 기준은 역설적으로 잘 먹어도 핫한 바디이다. 이율배반적인 이런 시대정신 속에서 우리의 미는 강건함을 잃어 가고, 자존감은 타인의 시선과 인증샷에 팔려 정체를 잃었다. 풍요의 시대, 넘쳐나는 음식과 잘 보이고픈 욕망 사이에서 극단적인 육체의 욕망으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까지,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들어 우리의 마음을 다독이며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가 “너 오늘 잘 사니”

보다 “뭐 먹었니?”가 안부를 묻는 인사이고, 관심이다. 먼 타지에 자식을 보내 놓은 어머니의 인사는 “밥은 먹었니?”,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이 더위에) 뭐 해 먹지?”이다. 먹기 위해 일을 하고, 살기 위해 먹는다. 끼니마다 새롭고, 한 번 먹었다고 더 이상 안 먹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 책은 즐거운 밥상, 나눔과 섬김의 밥상, 함께하는 밥상, 회복이 있는 밥상, 지속 가능한 밥상, 창조적인 밥상, 구속적인 밥상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와 음식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바른 식습관과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함께함으로 누리는 풍성함, 그리고 사용하는 식재료부터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까지 밥상에 미치는 다양한 세계관을 보게 한다.

### 밥 먹을래, 먹어치울래?

철학자 강모 씨가 한 방송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당신이 먹고 있는 밥은 식사인가 사료인가?” 그는 “사료는 한 끼 때우기 위해 의무적으로 밥을 먹는 것이고, 식사는 한 끼를 먹더라도 잘 차려 먹기 위해 음식의 맛, 분위기 등을 꼼꼼히 체크하며 즐기는 것이

교회 앞마당은 주차 공간만은 아니다.  
언덕 위에 있는 교회 앞마당에서  
고기 한 번 구우면 온 동네가 입맛을 다신다.  
교회 앞을 지나던 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고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나누고 나면,  
예수의 식탁과 무예가 다를까?

다”라고 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를 더한다. 과연 이 식사에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나아가 어떻게 대접할 것인가? 어느 광고문구가 생각한다. “같이 밥 한 번 먹자.” 여기에 하나더 질문한다. 같이 밥 한 번 먹을 식탁을 준비해 본 적 있는가? 이제 밥을 먹어 치우지 말고, 밥을 먹자.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이 책은 환대를 위한 ‘행복 레시피’까지 준비해 놓았다. 다된 밥상에서 어떻게 기도할지, 무엇을 이야기할지 고민되는 이들을 위한 ‘식사 기도’와 밥상에 대한 실천으로 생각할거리들 그리고 먹거리 이야기뿐 아니라 토론의 가지까지도 대접한다.

### 환대의 식탁, 예수의 밥상

세계관 운동이라는 것이 그렇다. 일반적으로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렵게 생각되는지 삶과는 동떨어진 학문세계에만 작동하는 원리라 여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세계관은 학문 이전에 거듭난 이들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이고(그래서 니고데모의 안경이라 하지 않는가) 삶의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개입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다. 세계관의 세례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도 충분히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것이 심지어 밥상이라도 말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광장에 선 기독교〉, 137p, 미로슬라브 볼프.

물론 아직 이 세상의 과업을 성취하지 않은 1인의 미혼으로서 날마다 누군가(가족)를 위한 식탁을 준비하지는 않기에 쉽게 생각한다는 한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대단한 식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고 소박하게 서로에게 부담 없는 식탁으로 대접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는 쿡방, 떡방, 맛집 인증샷만 찍지 말고 새로운 별미로 더 풍성한 밥상을 느껴 보라. 세상 모두가 먹는 것에 집중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 시대를 떠나지 않으면서 다르게 타인과 더불어 너른 팔로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맞보는 밥상을 대접하고 향유하며 즐기자. 그러기에도 이 인생은 짧다.

내 기억에 남는 가장 형편없는 식탁은 고등부 교사 시절, 우리 집에서 먹은 자장라면이었다. 고교 남학생만 무려 열 명, 급작스런 방문에 부리나케 끓인 라면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다. 성장기 식욕에 오히려 부족할까 걱정했던 만, 자장라면의 불어 버리는 속도는 이들의 허기를 채우고도 남았다. 불어 터져 아무리 먹어도 남는, 사르뫼 과부의 밀가루 통 같은 그 라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것으로 충분히 웃었고 즐거웠고 따뜻한 먹는 이도 차린 이도 부담 없는 식탁이었다.



글 | 신효영

건국대에서 디자인을, 총신대에서 기독교문화를 공부했다. 출판사 편집부, 미디어 강사를 거쳐 현재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대표간사이자 〈월드뷰〉를 만들며 또 다른 꿈을 꿈꾸고 있다.